



삼국유사 위만조선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위만(魏滿, 衛滿)은 중국에서 고조선(古朝鮮)으로 망명하여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다. 위만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조선이라는 국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들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를 위만 조선이라고 별도로 지칭한다.

2 위만의 이름

위만은 수수께끼의 인물이다. 위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사서인 『사기(史記)』인데, 거기에는 단지 '조선왕(朝鮮王) 만(滿)'이라고만 칭하고 있다. 후한(後漢)대에 쓰여진 『잠부론(潛夫論)』에서 처음으로 '위만(魏滿)'이라는 표기가 보이고, 이후 『위략(魏略)』, 『삼국지(三國志)』, 『후한서(後漢書)』 등에서는 '위만(衛滿)'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위만(魏滿)'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관련사료](#) 따라서 '위'가 성이고 '만'이 이름인지, 아니면 위만이 이름인지, '위'가 성이 맞는다면 '위(魏)'인지 '위(衛)'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3 위만의 출신에 대한 논란

위만의 출신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사기』에서는 위만을 옛 연(燕) 나라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위만은 고조선으로 망명할 당시 무리 천여 명을 모아 북상투(黠突)를 들고 오랑개 옷[蠻夷服]을 입었다고 한다. [관련사료](#) 이를 근거로 위만은 순수한 연 나라 사람이 아니라 고조선 계통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가 나오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위만을 한족(漢族)으로 보고 한국사의 시각을 식민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규정한 것에 따른 반발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위만이 북상투를 들고 오랑개 옷을 입은 채 망명한 것만으로 고조선계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망명 시 옷차림을 바꾸었다는 것 자체가 그전까지는 그런 머리와 옷차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망명이라는 정치적 행위와 함께 머리와 복장을 바꾼 것은 망명지인 고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수용하여 호감을 사기 위해 행위였을 수 있다.

같은 시기 남월의 왕이 된 조타(趙陀)의 경우 위만과 비슷하게 외부인으로서 왕이 된 인물이라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 기록에 따르면 조타는 명백한 한족(漢族) 출신임에도 북상투(黠突)를 틀었다고 한다. [관련사료](#) 조타의 예를 통해 출신이 한족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충분히 이민족의 머리와 복식을 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위만이 고조선계가 결코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만은 노관을 따라 흉노로 망명하지 않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는데, 연나라가 과거 고조선의 영역을 정복하며 다수의 구성원들을 흡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자신의 혈연적 친연성에 이끌려 흉노가 아닌 고조선으로 망명했을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이처럼 불확실한 위만의 출신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 망명자에서 왕으로

고조선은 이를 신라로부터 세력을 떨치던 국경선 밖으로 연나라의 세력권을 넘겨 주기로 하였다.